

전남권에 의대 유치 ‘30년 숙원’ 풀었다

당정,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3000명은 지방 공공의료분야 중사 ‘지역의사 선발’
전남도, 동·서부권에 대학병원·강의 캠퍼스 분리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의대 유치를 선정하고, 코로나 19 사태 속 열악한 의료 여건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지역 내 경쟁을 조율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을 대표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설 예정이

어서 양 지역에 의대와 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등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000명

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전형으로 ‘지역 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된다.

교육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유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정

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연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늘어났다. 2032년에는 다시 3058명으로 돌아간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기존 의대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 전남지역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도내 대학의 의대 설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의대 정원 기

본계획을 수립한다. 입시 요강은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함께 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계획 정부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이 사실상 확정돼 200만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계기로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도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김지사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유치 경쟁을 의

식한 듯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해 의대신설의 혜택이 양지역에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내 의과대학이 없어 매년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치료받은 인원만 80만명으로 의료비 유출도 1조3000억원에 달해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남에 명실상부한 최신회의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 도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현안 예산 반영…호남권 뉴딜 적극 지원”

광주시·전남도-민주 지도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호남권 뉴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예산 반영, 5·18 특별법 제정 등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5면〉
사·도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21대 첫 번째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또 광주 군 공항 이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근로자 주거 지원 규정 마련,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에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 중심 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두관 의원, 박광온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찬 당 대표,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범(실증) 도시 조성, 광주송정역사 증축, 광주국악원 유치 등의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정원 100명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시설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형 상생 일자리 추진, 차세대 대형 원형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흑산공항 조기 건설 등을 건의했다. 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해남

RE100(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자동차 공장) 전용 시범국가산업단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전선(보성~순천) 고속전철 조기 착공,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분권 관련 지방에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 사업을 한시 규정 없이 지속 보전하는 등 지방에서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광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관련된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이전에 적극 찬성하며, 이는 낙후·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무현 정신으로 당과 대한민국 도약시키겠다”

김부겸 민주당대표 후보 광주·전남 방문 호남 당심잡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3일 또 다시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섰다.

〈관련 인터뷰 3면〉
김 후보는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해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광주와 전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무등산에 조성된 ‘노무현 길’을 찾아 “노무현의 정신으로 당과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시 희망의 끈을 잡는 길을 노무현과 함께 걷는다는 각오로 왔다”면서 “노무현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은 그의 열정, 그의 역사에 대한 꿈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초 노무현길 탐방로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등산 일정은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수시청을 방문해 권오봉 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을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3일 광주·전남 북구 무등산국립공원에 있는 ‘무등산 노무현길’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만남 뒤 순천, 광양을 방문해 당심 잡기에 나서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서울로 돌아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
청년작가 14인전 ▶16면

돌아온 투수 문경찬·임기영
KIA 순위싸움 앞장선다 ▶18면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88명)이 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고려량 고강도 레티놀이 2주간
효과를 주름을 단 2주 만에 개선